

'91년 석유정책의 회고



文在燾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1. 머리말

'91년 辛未年은 우리 석유산업에 또다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해였다. '91년을 반으로 나누어 볼 때 전반기는 걸프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에 주력한 기간이었다고 보면, 후반기는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석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 기간이었다.

'91년중 시행했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살펴보면, 걸프사태기간중 수도권 민생용유류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社와 雙龍精油의 합작투자가 확정되었다. 또 7월 1일자로 국내유가가 약 4.4% 인하조치되었으며, 9월 1일자로 휘발유·등유가격이 자유화 되었으며, 동시에 3·14 조정명령이 해제되어 정유사의 유통업 참여제한이 해제되었고 11월 4일자로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유소거리제

한이 종전의 반으로 완화되었으며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민간비축제도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2. 석유정책의 회고

금년 3월 걸프사태가 종결되고 국제원유가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자 물가안정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유가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유가관리에건상 인하는 곤란하므로 시기상조란 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었다. 시기상조를 주장한 배경은 첫째 걸프사태가 종결되었으나 국제석유시장의 증장기 수급사정을 고려할 때 '95년경에는 25\$/B까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며, 둘째 국내석유류 가격이 '85년 이후 6차례에 걸쳐 계속 인하한 결과 수출경쟁국에 비해 오히려 싼 실정이며, 셋째 계속적인 유가인하로 인해 석유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매년 소비증가율이 20% 이상을 상회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걸프사태기간중 국내 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손실보전금 중 지난 3월 당시 3,50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향후 기금 징수분과 상계처리키로 한 만큼 동 재원의 확보가 요청된다는 점과 특히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사업에 필요한 필수기금의 확보가 법제화되어 향후 기금 징수 전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유가가 안정되었으므로 국내 물가안정을 기하고 수출경쟁국인 臺灣의 경우에도 5월에 약 5% 가격을 인하한 만큼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석유가격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격을 4.1% 인하하였다.

한편 당시 가격을 인하하면서 휘발유, 등유가격을 자유화할 계획이었으나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가자유화와 함께 시행할 가격표시제 등 각종 보완조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준비 여유기간을 두어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약 2개월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계획대로 휘발유 및 등유가격을 자유화하게 된 것이다.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유사는 자유화로 인한 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오히려 전면자유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 명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유사간 과당경쟁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시 결국은 기업이 부실해지고 동 부담요인을 고시유종에 전가하게 되어 국내 유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유소거리제한 폐지, 상표표시제 실시, 3·14 조정명령 해제 등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만 자유화 할 경우 정유사 단계의 가격경쟁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순 석유산업경쟁촉진 대책을 발표하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이후 가시화되자 성수기가 다가오기전에 휘발유·등유가격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석유업체나 소비자 모두 관리가격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석유업체등 각계 각층에서 가격자유화는 불가피하나 자유화 이후 부작용을 우려해 경쟁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행정지도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어 휘발유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연동키로 하고 등유는 월동기간중에 국내생산원가와 수입가격을 감안하여 행정지도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일자로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동시에 지난 '81년 3월 14일에 발효된 정유사의 유통업참여를 제한한 조정명령도 국내 석유유통업계의 근대화를 위해 해제하였다.

자유화 이후 국제원유가가 성수기에 접어들어 상승하기 시작하고 특히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정유사의 환차손 부담이 가중되어 공장도가격 인하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 주유소가 마진 현실화를 이유로 가격인상을 하기도 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전 고시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들어 국제원유가가 OPEC(석유수출국기구) 평균으로 19\$/B를 상회하고 환율도 기준환율인 730원/\$을 상회하여 750원/\$에 이르자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유사는 손실발행을 이유로 가격을 약 10% 수준 인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인상요인을 검토한 결과 약 7.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동 수준에서 휘발유가격을 인상하되 등유가격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을 자제토록 권고하였고 정유사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휘발유가격만 사별로 7.1% 수준에서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정유사가 자유화를 틈타 담합인상을 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가격자유화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비판중에는 주유소의 상표표시제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일부 정유사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모든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격을 인정한 정유사 제품을 쓰는 주유소도 당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언론이 주유소업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11월말이 되자 국제원유가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환율 또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휘발유가격을 지난 12월 3일부터 2.4% 인하함으로써 가격자유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88년 이후 석유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국내 석유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이러한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소요가 발생되고, 또한 국내시장에 대한 국제 메이저의 관심이 계속 증대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 社는 '90년 후반부터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고 결국은 국내 석유시장이 아직은 신규참여를 허용하기에는 이르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국내 정유사가 국제경쟁력 있는 규모로 성장할때까지는 당분간 5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정유사와 합작투자는 가능하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Aramco 社는 雙龍精油和 합작투자 형식으로 지난 5월 국내시장 참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양사의 합작조건에 정부정책이 신규참여를 허용하는 시점에는 분리하여 신설 정유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외국 메이저에 의한 직접투자가 실현될 전망으로 국내 석유산업 구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맺는말

'91년은 국내 석유산업에 변화의 시작이된 해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업체도 내부적으로 조용한 거둢나기를 하고 있다. 다행히도 걸프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수십년간 숙원이었던 유가자유화를 비롯한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석유업체에 대해서도 먼 장래를 바라보고 추진되고 있는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개편 정책이 국내 정유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자기변신의 노력을 기대한다.

누그러지지 않는 석유수요급증추세 이대로 좋은가

南 命 福
〈油公 업무부장〉

머리말

국내 석유류 수요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87년 이후의 낮은 수준의 안정된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으로 인하여 매우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수요증가추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것으로서, '87년~'90년 동안의 다른 외국의 연평균 석유수요증가율은 美國이 0.3%, 유럽 1.7%, 日本 5.3%, 개발도상국 평균수준이 5.4%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석유수요증가율은 무려 19.2%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요급증추세는 앞으로도 전혀 그 기세가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금년중에도 약 19% 수준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내년에도 신규 석유 화학공장의 본격가동 및 전력수요증가에 석유화학발전의 SWING에 따라 나프타와 B-C유의 대폭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어 석유수요증가율은 여전히 두자리수의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 석유 다소비형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점, 즉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및 中東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국제수지 적자폭을 확대시켜 우리경제운용의 탄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석유 다소비로 인한 환경에의 부하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이러한 석유수요의 증가를 「강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92년도 국내 석유수요전망과 함께 이러한 석유수요급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92년 국내석유수요전망

정부의 '92년도 잠정석유수급계획에 감안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2년의 국내석유수요는 발전용 B-C유가 약 35%,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의 수요가 전년대비 약 26%씩 대폭 증가하여 전체로는 '91년보다 18.7%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주요유종별로 살펴보면 휘발유수요는 차량운행대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89년 이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92년에는 차량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19%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등유는 가정·상업부문의 보조난방용을 중심으로 약 7% 정도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유는 수송용수요의 증가와 연료사용규제로 인한 B-C로 부터의 연료전환 및 가정·상업용 유류보일러의 판매증가에 따른 가정·상업용 수요의증

휘발유 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1		1992	
		%		%		%
교 통 용	22,250	32.3	26,977	21.2	32,507	20.5
기 타	1,443	13.8	1,729	19.8	1,617	△6.5
計	23,693	31.0	28,706	21.2	34,124	18.9
차량운행대수(천대)	1,666	38.7	2,205	32.3	2,770	25.6

'92년 석유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1		1992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연료유	303,226	21.7	354,468	16.9	412,780	16.5
- 휘발유	23,692	29.5	28,706	21.2	34,124	18.9
- 등·경유	122,392	24.5	140,779	15.0	160,025	13.7
- B-C유	104,547	19.8	123,990	18.6	143,594	15.8
- 프로판	23,574	11.9	29,889	26.8	35,444	18.6
- 부탄	12,138	10.7	14,329	18.1	21,040	46.8
- 기타	16,883	12.9	16,775	△0.6	18,553	10.6
○ 非연류유	53,123	39.6	70,947	33.6	92,255	30.0
- 나프타	47,553	39.2	62,994	32.5	79,361	26.0
- 아스팔트	5,113	47.7	7,555	47.8	12,496	65.4
- 기타	457	7.5	398	△12.9	398	-
합계	356,349	24.1	425,415	19.4	505,035	18.7

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92년중에도 여전히 15% 수준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B-C유는 그 수요의 대부분을 산업용과 발전용이 차지하고 있는 바, 산업용 B-C유 수요는 '90년에는 약 20%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건설경기의 진정 등으로 수요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어 '91년에 이어 '92년에도 국내 제조업 평균성장률 정도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의 Lead-time 상의 제약으로 석유화학에 의한 공급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근년에 발전용 B-C유의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90, '91년중에는 30~40%의 높은 수요증가율을 보였으며 '92년중에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나프타수요는 '90년의 석유화학산업 투자자유화 조치이후 석유화학공장의 신·증설 러시로 '91현재 '89년말대비 나프타분해설비는 년산 1,300천톤이

증가되었으며 방향족 제조설비는 약 1,600천톤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90, '91년중 약 30~40%씩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신규석유화학공장이 본격가동될 '92년 중에도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유종별 수요증가전망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92년중에는 발전용 B-C유 및 석유화학용 나프타를 중심으로 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높은 수요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7년 이후의 높은 수요증가 추세는 '92년중에도 그 기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요급증에 따른 부정적 측면

국내석유수요의 급증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 및 경제활동의 확대와 승용차등 차량보급 대수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9년 제2차 석유위기 이후 '85년까지의 고유

경유 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1		1992	
		%		%		%
수송용	52,964	13.6	61,332	15.8	69,408	13.2
가정·상업용	16,451	31.2	22,702	38.0	27,515	21.2
산업용	20,680	12.7	22,893	10.7	24,724	8.0
기타	7,355		8,576	16.6	11,394	32.8
합계	97,450	16.1	115,503	18.5	133,041	15.2

B-C유 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1		1992	
		%		%		%
산업용	55,581	19.5	60,472	8.8	65,310	8.0
발전용	27,953	34.0	40,879	46.2	55,276	35.2
기타	21,013	5.5	22,639	7.7	23,008	1.6
計	104,547	19.8	123,990	18.6	143,594	15.8

가시대에 석유수요의 GNP 탄성치 (GNP 성장율에 대한 석유수요 증가율 비율)가 1이하 이었던 것에 비하여 '87~'91년 기간동안 석유수요의 GNP 탄성치가 2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은 그동안 저유가체제하에서 에너지소비 절약의식의 후퇴 및 석유 등 에너지사용 효율성의 저하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수요증가율	GNP 성장율	석유수요탄성치
'87~'91	19.3%	9.1%	2.1

* 선진국의 경우 탄성치가 1미만 수준임

우리나라는 '86년이후 8차에 걸친 국내유가인하를 통해 상대적 저유가 정책기조를 취해 왔던 것에 반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석유의존도 감축과 환경에의 부하감소 목적으로 석유수요억제를 위한 고유가 정책을 견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제원유가가 피크에 도달했던 '80년에 대비하여 '91. 7월 현재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8% 하락한 반면 주요선진국은 오히려 50% 이상이나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의 저유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인플레이 억제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석유 등 에너지사용의 비효율화로 인한 Energy Bill의 상승 등 많은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저에너지가격은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이나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술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저감시켜 기업 혹은 민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문에의 투자 또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다소비에 의한 생산성증대로 유인케 된다고 생각한다.

이의 실례로 GNP 1단위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석

유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英國,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1.5배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日本에 비하면 약 3배에 가까운 정도의 에너지 및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국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수요구조의 차이를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격차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는 타선진국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열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상당부분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석유수요의 급증은 국가적인 석유조달비용을 급증시켜 국제수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91년중 석유도입 비용은 약 80억 달러로 산정되어 우리나라 총수입금액의 약 10%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90년대 말경에는 국내석유수요가 7억배럴 이상에 달하여 당시의 국제원유가를 35\$/B로 가정시 연간 석유도입비용은 약 250억달러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수입금액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석유도입비용 증대에 따른 국제수지 부담가중은 우리 경제운용상의 탄력성을 저감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로 향후 국제원유공급시장은 非 OPEC 지역의 원유생산량 정체 및 감소로 OPEC지역의 공급량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내석유수요의 증가는 곧바로 OPEC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심화시켜 국내석유안정공급 및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내포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로 석유수요급증은 산성비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물질인 SOx, NOx 등의 배출량을 증대시킬 뿐만

주요국가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변동

	한 국		영 국		프 랑 스		일 본	
	₩/ℓ	지 수	£/ℓ	지 수	FF/ℓ	지 수	¥/ℓ	지 수
1980 평 균	580.9	100	28.3	100	3.38	100	147	100
1991. 7	477.0	82	44.8	158	5.19	154	134	91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시되어 거론되고 있는 CO₂ 발생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의 부하증대는 역으로 환경 Cost의 증폭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경

제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공급측면에서도 상압증류시설뿐만 아니라 증질유 분해·탈황시설, 수송·저유 등 공해 방지 및 물류관련시설 등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국의 에너지 및 석유수요지표('90년)

	한 국	일 본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에너지총수요/GNP(TOE/백만\$)	0.39	0.14	0.25	0.21	0.23
석유총수요/GNP(Bbl/백만\$)	1,565	635	752	702	649

투자사업의 조기/대규모 추진이 불가피해져 국가적 자원배분의 비효율화 및 국민경제에의 부담을 증폭시키게 된다.

석유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및 맺음말

위와 같은 석유수요의 급증에 따른 역기능을 고려시, 석유수요의 급증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석유수요관리를 필자 나름의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언하면서 보고를 끝내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및 석유수급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철학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는 정부의 석유수급 등 에너지수급정책은 안정공급구조의 차원에서 공급확보중시의 정책을 취해왔다고 보여진다. 환언하면 에너지 및 석유의 수요를 Meet 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급측면에서 공급능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여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경제구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될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에너지 및 석유공급능력 한도 내에 어떻게 수요를 효율화시키고 낭비요소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즉 수요관리측면을 중시하는 에너지 및 석유수급정책을 병행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격 및 세제측면에서 종래의 저유가정책기조를 바꾸어 에너지절약 유도형 고유가정책기조로 전환하여 에너지 및 석유류의 가격구조를 개편

하고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통한 Energy Bill의 감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제면에서 소비성유종에 대하여 특소세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 서민층의 취사용 및 보조난방연료이었던 이제는 중산층 이상의 보일러 연료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등유에 대하여 특소세를 신설한다던가, 휘발유의 특소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수요관리측면에서는 기존의 각종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보완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에너지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승용차에 대한 연비의 향상목표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의 획기적인 확대에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계상의 지원확대를 꾀하는 등 에너지절약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초등단계에서부터의 학교교육 등을 통한 석유 등 에너지소비절약의 생활화 획책 등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